바람과 해님이 서로 힘이 더 세다고 다투고 있을 때, 한 나그네가 따뜻한 외투를 입고 걸어 왔습니다. 그들은 누구든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이가 힘이 더 세다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북풍은 힘껏 불었으나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. 그 때에 햇님이 뜨거운 햇빛을 가만히 내려쬐니, 나그네는 외투를 얼른 벗었습니다. 이리하여 북풍은 햇님이 둘중에 힘이 더 세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